

지자체 유일 광주 4·19기념관 ‘슬픈 자화상’

안내데스크 텅 비고 먼지만 수북 관리 방지에 시민들 외면 市 연 7500만원 지원으로 한계 인건비 빼면 행사기획 꿈도 못꾸 4·19단체, 활성화 대책 촉구

광주지역 4·19단체들은 4·19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광주 곳곳에 있는 4·19유적과 기념관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념관(광주시 동구 계림동)은 예산 15억원을 투입, 지상 2층(부지면적 610㎡) 규모로 지난 2006년 문을 열었다. 이후 2012년 한차례 증축 공사를 통해 4층 규모를 갖추게 됐다.

1층은 전시관·봉안소로 구성돼 있으며, 2~4층은 관리실, 단체 사무실, 세미나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시 1960년 3월15일 자유당 부정선거에 저항해 같은 날 광주에서 일어난 3·15 의거를 기리고 4·19정신을 부각하기 위해 4·19기념관을 건립했다.

특히 광주시가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4·19기념관 건립을 결정한 것은 광주에서 마산보다 3시간여 앞서 3·15 의거가 일어나 최초 4·19 시원지로 꼽히고 있는 데도, 변변한 기념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국립 4·19혁명기념관)과 마산(국립 3·15민주묘지 기념관)에는 4·19 관련 국립 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광주 4·19혁명기념관은 4·19관련 3개 단체(4·19민주혁명회 광주·전라지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가 공동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4·19단체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4·19 혁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기념관은 시에서 너무 신경쓰지 않는다”며 “광주 3·15 의거를 알릴 수 있도록 기념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부터 광주공원 4·19추모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58주년 4·19혁명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8일에는 광주공원 시민회관 일대에서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역사자료 전시(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등이 이어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 4·19혁명기념관'에 전시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특조위 황전원·선조위 이동곤 사퇴하라” 세월호 유가족들 삭발식·단식농성 돌입

조사 방해·실험결과 은폐 의혹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방해 및 실험 결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제인양부과장은 17일 오후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위원과 선제조사위원회 이동곤 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정동수군 아버지만인 정 분과장은 “황전원은 참사 당일 ‘골드타임’ 동안 국가 수장 박근혜의 행적을 감추고자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황전원이 2기 특조위에 있는 한 계속 활동을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조위 이동곤 위원에 대해서도 “2014년 검찰 의뢰로 침몰 원인 실험을 100여 차례 했던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다. 당시 실험 결과는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인 ‘증·개 추, 고박, 고박 불량, 조타미수’와 다른 것이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분과장은 이와함께 4년 전 실험을 알리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명모, 김철승, 공길영 선조위위원도 선조위 보고서 작성에 서베제해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임명된 황 위원은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회의 도중 퇴장한 전력이었다.

그는 위원직을 사임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으며 최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기 특조위에 임명됐다.

선조위의 한 관계자는 “이 위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선조위 활동에서 배제됐다”며 “현재 2014년 자유항수실험 결과와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측이 자료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달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모형시험을 의뢰했지만, 나중에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가 잘못됐음을 발견해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 입건 수사 착수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여·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청은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업체의 광고팀장 B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지난 2일 A업체의 익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 전무는 A업체에 사과 문자를 보냈고,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연합뉴스



생존수영 배우는 선생님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안전제가 17일 무안 전남체육고등학교 수영장에서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해양사고에 대비한 ‘생존수영법’을 교육하고 있다. 서해해경은 다음달 7일까지 전남 교사 420명을 대상으로 순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초등생 감금·폭행한 자매 학원장 항소심도 집유

수강생을 상담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자매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여)씨와 강씨의 여동생(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순천에서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자매는 2016년 5월 결석한 수강생 손모(12)군을 혼냈다가 손군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가 항의하자, 하교하는 손군을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학원 상담실로 데려가 45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

또 손바닥으로 손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진피기자 lucky@kwangju.co.kr

음주폭행 체포 20대 발길질에 경찰관 중요 부위 하마터면...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폭행혐의로 체포된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남성을 건어차차 바람에 철창행.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이날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날 새벽 4시32분께 서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상무지구대 소속 A(26)경장에게 시비를 걸고 남성을 건어차차 3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에도 광주동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의 남성을 발로 찬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미혼의 A경장이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다행히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김현영기자 young@

영광전원주택(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10평), 마당전체 잔디(고급파라솔 설치)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3천 ◆
매매가 9천 7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매매

◎ 월곡동 신축건물(최고급)
(월곡시장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 매가 8억3천
- ② 산정공원바로앞(코너)1층상가(2개)원룸(12개) 4층(최고급주택)월세 550만 ▶ 매매가 9억5천만
- ③ 전대정문 2분 (원, 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 매가 1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2분 ▶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7백	5)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3억6천
2)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24실 32개(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	6)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평, 건 101평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3천
3)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7) 상무지구 세경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4천
4) 서구 내방동 4층 상가건물 토 77평, 건 123평 ▶ 감평가 5억3천 - 최저가 5억3천	8)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9)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10)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4억6천
	11) 서구 매월동 (정제식당) 토 3,302평, 건 3,956평 감평가 2백70억 - 최저가 190억

A.P.T	주택	토지.기타
① 서구 용암동 주민아파트 24동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⑥ 북구 용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9천	⑬ 광산구 월산동 토지 1,999평 건물 240평 감평가 88억 - 최저가 48억
② 서구 내방동 배후주공아파트24동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6천	⑦ 광산구 월계동 (중주책) 토지 189평 건물 75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5천	⑭ 광산구 월동 (공영) 토지 2,200평 건물 1,250평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
③ 서구 용암동 마주아파트 22동 감평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⑧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⑮ 서구 용암동 (농지) 1,0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9억
④ 광산구 쌍촌동 신부영 (2층)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⑨ 북구 용봉동 (주택) 토지 37평 건물 28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⑯ 광산구 비호동 (농지) 13,000평 감평가 19억 - 최저가 4천4백
⑤ 동구 용암동 관아아파트 22동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3천		⑰ 서구 용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9억 - 최저가 49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 ① 기초실전반 (경매개초 + 기본실전)
-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③ 무료반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